

# 원희룡 장관, “강원 서부권 촘촘한 교통망 구축 추진”

## - 8일 원주 도로·철도 사업 현장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 당부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8일 오후 2시 원주시를 방문하여 원주시 권역 내에서 추진 중인 교통망 구축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 먼저, 원 장관은 박정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함께 원주시 인근 도로에서 권역 내 국도·국지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건의받았다.
  - 원 장관은 보고를 듣고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가을 초입인 9월은 한여름인 8월과 함께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인만큼, 충실하게 수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근로자 안전관리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 “지역 숙원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교통수요 및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어서 원 장관은 서원주역을 방문하여 착공 준비 중인 “여주-원주 복선 전철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였다.
  -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은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계하는 핵심 연결구간으로 주민 이동 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당초 단선철도에서 복선철도로 대폭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신 만큼 반드시 연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GTX 및 수도권 전동차 연장 운행에 대한 박정하 의원과 원주시의 건의를 받고, 타당성 및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 9. 8.

국토교통부 대변인